

스웨덴의 규제개혁 성과 및 평가¹⁾

- ▷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규제개혁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
- ▷ 비효율적인 규제체제가 경제성장을 둔화 및 회원국 간 교역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주목
- 1998년부터 스웨덴을 포함하여 23개 회원국의 규제개혁상태를 조사 및 평가하였음
- ▷ 특히, OECD는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적 효과, 시장개방과 경쟁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

1. 규제개혁의 배경과 거시경제 효과

(1) 배경

- 스웨덴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거버넌스 체제를 이루고 있으나, 고령화 사회에도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성장이 요구되고 있음
- 1990년대 초 부적절한 거시경제정책, 경쟁성 약화, 경직된 노동시장, 심각한 예산 적자 등 정책적인 결함과 외부충격이 맞물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았으나 규제 개혁을 통해 극복한 사례로 평가됨
- 물가안정목표제도(inflation targeting), 변동환율제도, 재정지출상한제 도입 및 전력산업과 텔레커뮤니케이션산업 자유화 추진 등

(2) 경제·산업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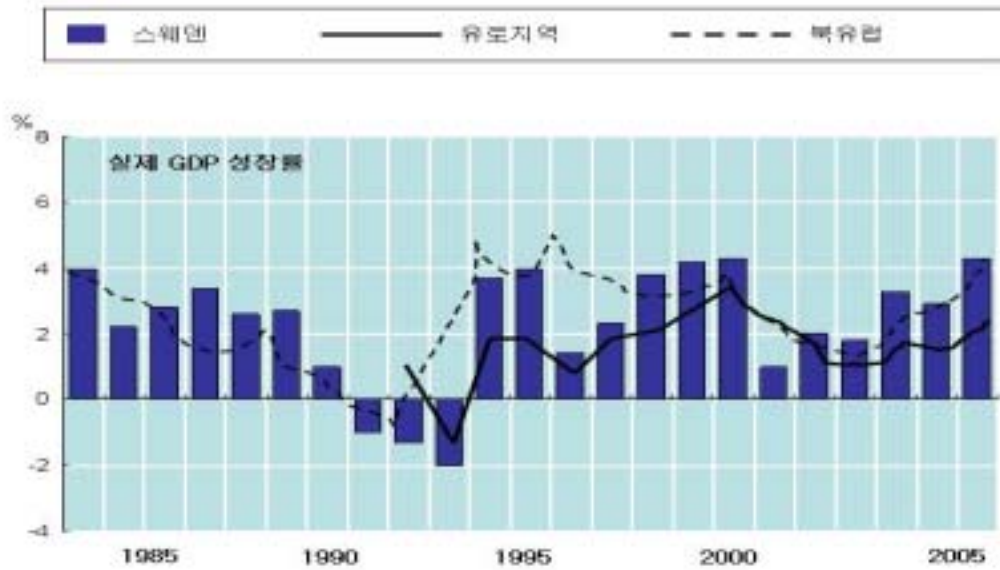
- 스웨덴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전통적으로 천연자원(산림 및 채광)과 제조업 분야(철강, 종이, 펄프, 기계, 화학, 의약, 텔레콤 등)가 우세함
- 텔레콤 산업의 자율화 방침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보통신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'90년대 후반 핀란드와 아일랜드 등에 비해 축소됨
- 1990년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시장개방 정책을 이행함에 따라 대규모의 성공적인 수출 산업을 보유함
- OECD 무역장벽 지표에 따르면 '98년 이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보다 개방적임
- 물가안정목표제도 도입으로 인해 1993년 이후 인플레이션 비율이 1~3% 유지

1) OECD (2007) *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: Sweden*, OECD, Pari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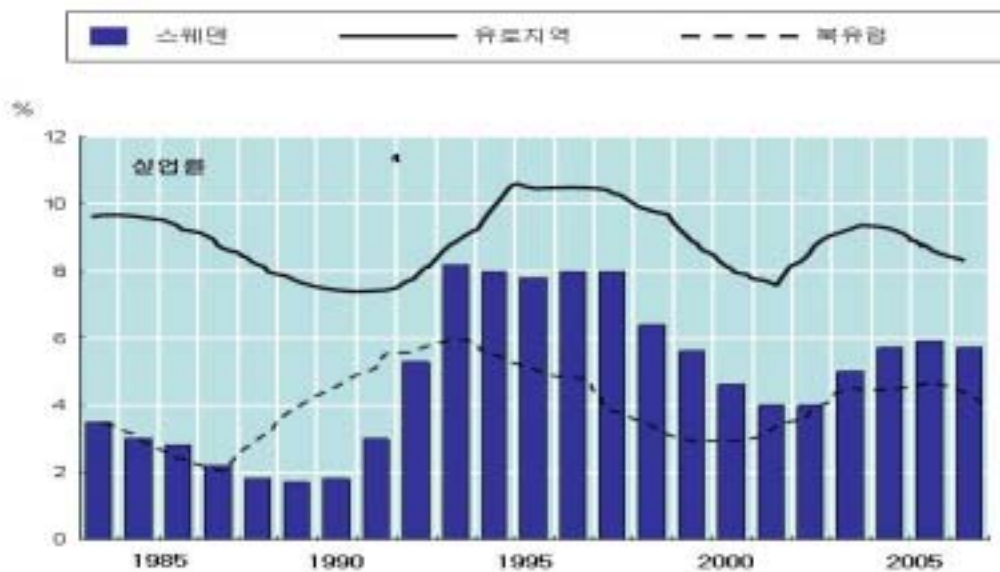
(3) 거시경제 효과

- 스웨덴은 성공적인 규제개혁 이후 2001년 국제경제 침체 및 텔레콤 시장의 거품붕괴 등 국제경제 쇼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수준 유지

<그림 1> 실제 국내총생산 성장률 (1985~2005)



<그림 2> 실업률 (1985~200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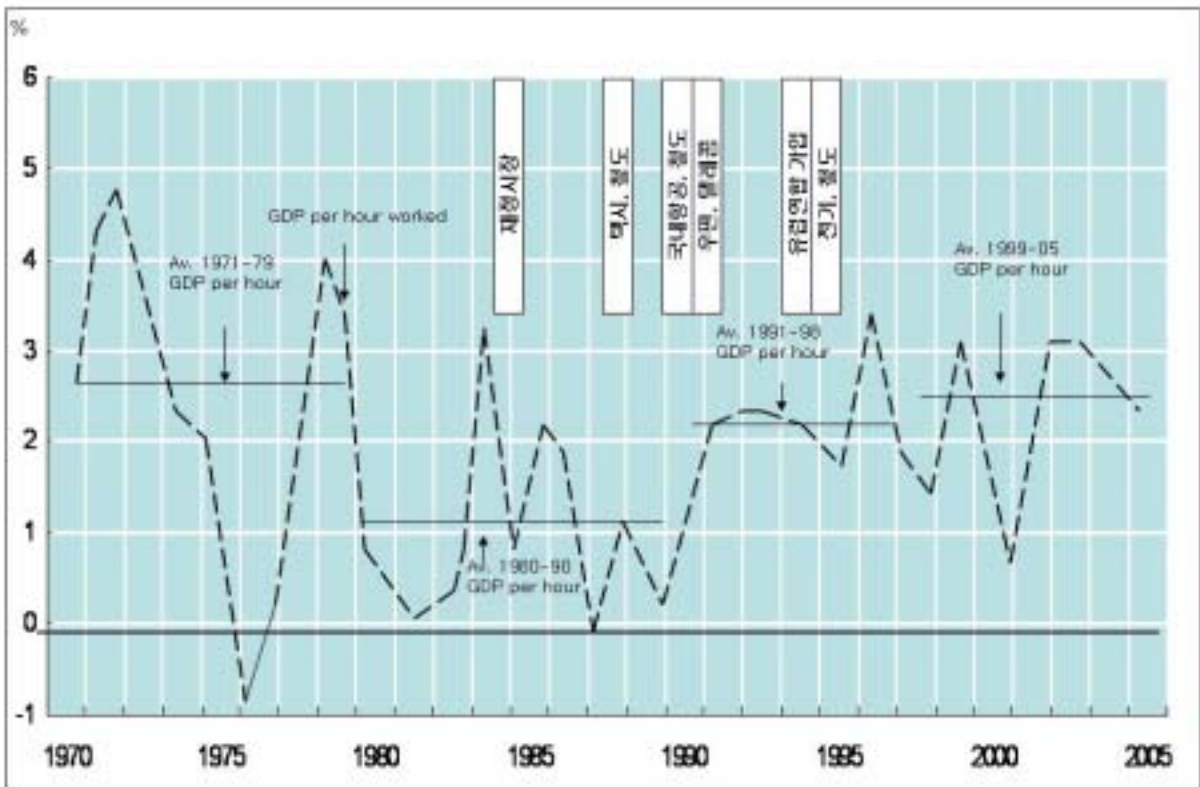


○ 특히, 규제개혁 이후의 스웨덴 노동생산성 증가가 두드러짐

- 노동생산성은 '80~'90년 1.2%에서 '99~'05년 2.5%로 증가

○ 이러한 생산성 증가는 '90년대 거시경제정책개혁,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, 정보통신산업 팽창 등 경제 구조적 변화, 자동차 산업 등의 전문화, 가격디플레이터 측정법 향상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 등에 기인함

<그림 3> 생산성 증가 및 규제개혁 시점



Source : OECD Analytical database.

2. 규제 거버넌스 (Regulatory Governance)

(1) OECD 규제개혁 7대 원칙²⁾

- 명확한 목표와 실행체계를 설립하고 정치적 수준에서 폭넓은 규제개혁 프로그램 채택
 - 규제개혁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명확한 법에 근거하여 규제효과가 사회전반에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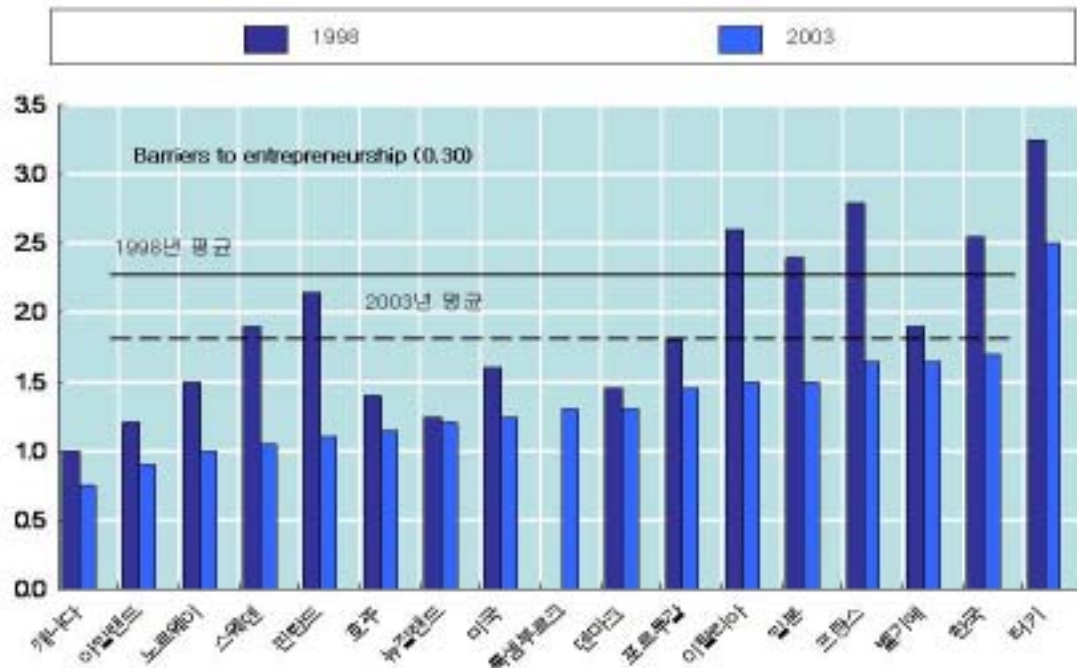
2) 2005 OECD Guiding Principle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

- 기존의 규제가 원래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규제를 검토
- 규제와 규제이행기관 및 규제과정 등이 투명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
- 경쟁정책의 범위, 유효성 및 강제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강화
- 경쟁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의 경제규제를 개선하고, 공공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규제는 철폐
- 지속적인 산업 자율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무역·투자에 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,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개방성 증진함으로써 경제 효율성 및 경쟁성 강화
- 다른 정책 목표와의 연계를 통해 개혁을 촉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

(2) 스웨덴 산업별 규제개혁 내용

- 스웨덴은 텔레콤, 우편 및 전기업의 자유화를 다른 EU 국가 혹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빨리 실시하였으며, 항공, 철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자유화 추진 중에 있음
 - 다만, 시장 자유화의 효과는 다각적이어서 텔레콤 및 우편시장과 달리 전기업의 경우 건축허가 제한 및 EU시장과의 통합 등으로 인해 신규 기업의 시장진출이 사실상 어려움
- 한편, OECD 무역장벽 지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에 비해 시장개방성이 높음
 - 스웨덴 무역청(National Board of Trade)에서 정부, 유럽연합 및 WTO간 공식 인터 페이스를 통해 스웨덴 정부에 시장개방 관련 분석자료 제공
 - 관세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기업친화적인 기관으로 전자관세 및 자동리스크 분석시스템('97) 도입 등을 통해 행정업무 및 국경절차 소요시간 절감
- 스웨덴의 시장규제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,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법(EPL :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)을 가짐
 - 노동시장의 유동성과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분야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보임
- 아울러 보건, 교육 및 양로시설 등과 같은 공공조달 서비스 제공에 민간사업의 참여를 허용함

<그림 4> 기업장벽 (Barriers to Entrepreneurshi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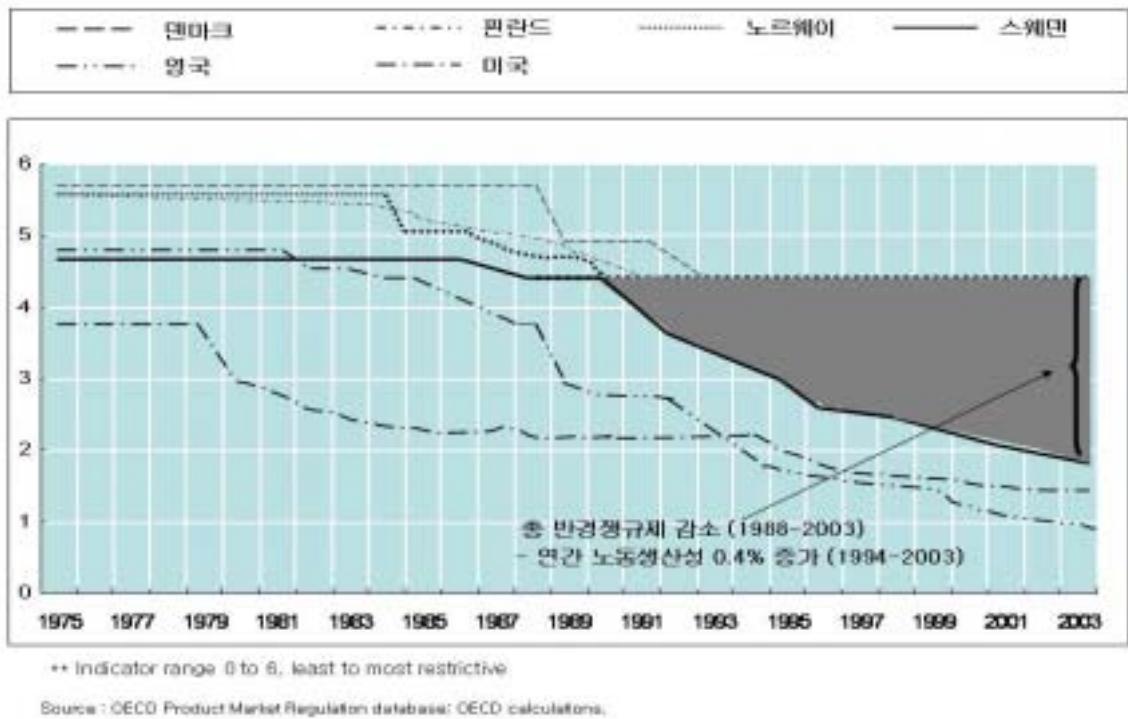


(3) 규제완화와 생산성간 상관관계

- o OECD는 "Sector-based Model³⁾"을 개발하여 규제개혁과 생산성간 상관관계를 증명함
 - 결과, 시장진입의 어려움과 경쟁성 약화 등이 선도적 제품과 기술투자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저해한다고 판단
- o OECD 모델을 기반으로 '88년 이후 스웨덴 규제개혁 이행 및 불이행 시 생산성 비교
 - '88년 규제개혁 이후 연간 0.45% 생산성 증가, 기존 규제 유지시 현재보다 0.4% 낮게 나타남 ('94~'03년 기준)
- o 스웨덴은 영국에 이어 시장개방 및 경쟁성 도입의 선두주자로서, '90년대 이후 각 분야별 시장친화적인 규제개혁으로 혁신을 촉진함에 따라 생산성 증가

3) OECD 21개국을 대상으로 '98~'03년간 실시하였으며, 지표는 항공, 철도 등 비제조업, 에너지, 커뮤니케이션, 회계, 법 등 전문 서비스, 은행 등의 분야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규제 포함

<그림 5> 스웨덴의 시장규제 성과 (1998-2003)



3. OECD 권고안

-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이 스웨덴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
- 이러한 성공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약화로 생산성 저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보다 폭넓은 규제개혁이 요구됨
 - 건축부문은 국제표준 결여 등으로 인한 외국기업 참여가 제한적이고, 일부 국내회사만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 (낮은 생산성과 가격 인플레이로 침체)
 - 식품소매업은 세 개의 그룹이 90%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외국기업 및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있음
- 또한, 교육 및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조달 서비스에서의 민간부문 참여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, 공공복지 서비스의 90% 가량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경쟁요소 도입 노력이 더욱 필요함
- 스웨덴의 고용보호법안과 실업보험제도에 대한 법·규정 재정비가 요구됨
 - 고용보호법에 따라 장기고용인에 대한 혜택("first in-last out" principle)이 주어지기 때문에 안정 지향적이며,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동기가 약함